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39-70  
<https://doi.org/10.29212/mh.2021..121.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김명섭\*

1. 머리말
2. 오광선의 성장과정과 만주 망명
3. 신흥무관학교 입교와 교관활동
4.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
5. 맺음말

### 1. 머리말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중 가장 강력하고 치열하게 전개된 방략은 바로 중국 만주에서의 항일 독립전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투쟁을 이어받은 무장투쟁의 전통은 옛 고조선 영토인 중국 만주를 중심 무대로 삼아 한국독립군을 낳았고, 그 산실은 1911년 6월 서간도 통화현(通化縣)

---

\*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합니하(哈泥河)에서 개교한 ‘신흥학교’(후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라 할 수 있다. 약 10여 년 동안 3,500여 명에 이른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국독립군을 비롯해 의열단과 광복군, 조선의용대와 동북항일연군 등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여 독립전쟁사와 한국현대사를 이끌었다.

신흥무관학교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지식인과 독립지사들이 적지 않지만, 교장을 역임한 여준 선생을 비롯해 용인 출신의 민족지사가 다수 참여했고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중 여준 선생의 제자이면서 신흥무관학교의 학생과 교관에 이어 한국독립군 부대의 중대장과 대대장 등 실전부대의 지휘관으로 큰 역할을 한 오광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오광선(吳光鮮, 1896~1967)은 용인과 안성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펼친 부친 오인수 의병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1917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을 역임하고 이후 독립군 중추 간부로서 각종 항일전쟁에 참전하였다. 나아가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의 명에 따라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교관을 맡았고 일제 치하의 북경에서 첩보 활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광복군 국내지대장을 맡아 임정의 환국을 도왔으며, 국군 창설에 참여해 복무하다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전형적인 항일·건국 군인이다. 나아가 부친인 오인수 의병장에 이어 자녀 둘과 사위까지 독립운동 일선에 매진하였으니, 3대에 걸친 독립운동 참여 가문으로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독립운동가, 건국공신 군인으로서의 오광선에 대한 연구는 언론 잡지나 개인구술 등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학술영역에서 조명되지 못했다. 다행히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재조명 차원에서 관련 유적 및 자료도 발굴되어 학술연구도 진척을 이루었다.<sup>1)</sup> 이 글에서는 오광선의 일생과 항일 독립군 활동

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독립군의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sup>2)</sup> 특히 최근 발굴된 오광선의 자필 이력서(1963년 작성)와 사위인 신송식(申松植)의 자필 이력서(1965년 작성)를 비롯한 부인 정현숙(鄭賢淑, 본명 鄭正山) 여사의 생전 구술기록, 따님인 오희옥 여사의 면담 인터뷰, 지청천(池青天)·이규채(李圭彩)·이우석(李雨錫) 등 독립군 동지들의 수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군에서 펼친 오광선의 무장투쟁 활동은 물론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겪은 고난과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오광선의 성장과정과 만주 망명

오광선(초명은 性默, 후일 光鮮으로 개명<sup>3)</sup>)은 1896년 5월 13일 용인 원삼면 죽능리 어현(일명 느리재)에서 아버지 오인수(吳寅秀, 1867~1935)와 어머니 이남천(李南天, 1872~1957)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로 호군공(護軍公) 오희보(吳希保)의 14대손이다. 형제는 4남매이다. 고개가 길게 늘

1)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종합 연구로는 박환, 『재만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김병기,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 국가보훈처, 2011 ; 박환, 『신흥무관학교』, 도서출판 선인, 2021 등을 참조.

2) 오광선 일가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향토문화연구』 5집, 2003) ;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吳姬玉여사 면담록」 (『용인향토문화연구』 6집, 2006) ; 김병기, 「오희영·신송식의 광복군 활동」 (『용인향토문화연구』 8집, 2007) ; 김명섭, 「오광선의 항일 독립운동연구」 (『용인향토문화연구』 12집, 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오광선은 1917년 만주로 망명하면서 ‘조선의 광복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광선(光鮮)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다. 이후 1964년 3월 30일 서울민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개명하였다(<오광선 호적등본>, 서울시 동대문구청).

어져 있어 ‘느리게’라 불리었던 어현마을은 해주오씨 집성촌으로서 충절의 상징인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인 오달제(吳達濟) 등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온 가문이다.

부친 오인수는 18세부터 사냥을 시작해 용인·안성·여주 일대에서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고 한다. 인근 포수들의 친목모임인 화포계(火砲契)에서 매년 1등을 차지해 명포수로서 이름을 날렸다.<sup>4)</sup> 사냥으로 전국을 떠도는 바람에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29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오인수는 장남 오광선을 같은 마을출신이며 일찍이 서울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꾀하고 있던 여준(呂準, 1862~ 1932)이 고향 죽릉리 능골에 세운 삼악(三岳)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삼악학교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치 않으나, 여준 선생이 평양의 오산학교에 교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본따 고향에도 같은 교육과정으로 1906년경 지은 학교로 여겨진다.<sup>5)</sup> 오광선은 1907년 4월경 이 소학교를 졸업하였다.<sup>6)</sup>

1905년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강제강탈하자, 부친 오인수는 용인과 죽산 일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우선 용인지역에서 쫓겨난 유지 정원욱(鄭元郁) 의병부대에 참여해 중군장을 맡았다. 이어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

4) 오인수의 사격솜씨는 중국 망명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 옥고로 불편한 몸으로도 틈틈이 사냥을 했다고 한다. 당시 어린 손녀 오희옥은 “할아버지가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박숙현, 『마지막 증언』, 북소리, 2019, 41쪽).

5)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19일자 기사에는 여준이 吳台善 등과 협의하여 학교를 창설하였다고 전하면서, “吳恒善이 자기 집을 교사로 기부했다”고 한다. 용인 원삼면 문촌리 뒷산에 있는 吳建泳 목사의 묘비명에 의하면, 고인이 1906년 삼악학교 훈도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오광선이 작성한 이력서에는 1907년 4월 삼악소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오광선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이로 보아 삼악학교는 최소한 1906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6) <오광선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자, 그는 용인 용동(龍洞) 출신 유학자인 정철화(鄭哲和)의 의병부대에 가담해 중군장으로 참여하였다. 약 1백여 명에 이르는 이 부대는 남상목·김군필 부대와 합진하여 안성매봉재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다.<sup>7)</sup>

그러나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패퇴한 의병부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병력이 없어진 중군장 오인수는 빈 총을 메고 애견과 함께 산야를 헤매다 다리 상처를 이끌고 야음을 틈타 고향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당시 용인 양지면에서 친일활동을 벌인 일진회 회장 송병준의 아들 송중헌(宋鍾憲)이 조직한 토벌대와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당시의 상황을 지켜본 아들 오광선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토벌대는 아버님을 체포하기 전에 아버님의 반려나 다름없는 애견부터 죽였다. 당시 11살이던 나는 붙잡혀 가시는 아버님을 동구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와서 죽은 애견을 묻으면서 한없이 울었다.”<sup>8)</sup>

이처럼 토벌대에 끌려가는 부친을 지켜본 어린 광선은 죽은 애견을 땅에 묻으며 독립운동에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오인수는 약 7개월간의 모진 고문을 받으며 8년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해야 했다. 오인수는 6년 동안의 모진 옥살이를 한 후, 병든 몸을 이끌고 1913년 12월 출감하였다.<sup>9)</sup>

오광선은 부친이 옥살이하는 와중에도 1911년 삼악학교의 고등과에 들어가 1913년 3월 졸업하였다.<sup>10)</sup> 가세가 기울어 더 이

7) 이인영 편, 『내고장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용인문화원, 1989, 84쪽; 김명섭, 「한말 용인 항일의병의 활동과 그 특징」, 『용인향토문화연구』 7집, 2006.

8)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31쪽.

9)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28~229쪽.

상 공부할 수 없게 되자, 백부는 그의 나이 17세에 1913년 12월 부친이 출옥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시켰다. 신부는 14세로서 산하나 넘는 이웃 마을인 용인 이동면 화산리(華山里) 태생인 정정산(鄭正山, 1900~ 1992)이었다.<sup>11)</sup>

이미 독립운동에 큰 뜻을 품은 오광선은 신혼생활 와중임에도, 1914년 여름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남대문로에 있는 상동(尙洞)청년학원에 입학하였다. 우당 이회영이 숙감을 맡은 바 있는 이 학원은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한 뒤 평양 오산학교에 재직했던 여준(呂準)도 학감을 지낸 민족사학이었다. 아울러 학원은 상동교회와 함께 신민회 간부들의 비밀회합 장소로 활용되었다. 학원에는 친족이면서 같은 용인 삼악학교 출신인 조카 오일선(吳一善)과 오의선(義善) 등 동기생들이 진학했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sup>12)</sup>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민족적 사립학교를 없애고 식민지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규제법을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상동청년학원은 1915년 문을 닫게 되었다.<sup>13)</sup> 어렵게 고학하던 학교가 폐교되자, 오광선은 학원의 은사인 장지영(張志映) 선생의 소개로 잠시 한약국 급사로 일하였다. 하지만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싶었던 그는 장지영 선생에게 자신의

10)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11) 정정산(1900~1992) 여사는 중국 망명 후 정현숙(賢淑)으로 개명하였다. 그녀는 용인 죽령리에서의 신혼살림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14살 신혼살림때)남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으니 언제나 쪼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님께서 포수일을 하시면서 간간이 살림을 보태주셨지요. 나는 그때부터 일복을 타고 났다고나 할까? 농한기에도 다른 집 일을 해면서 살림을 꾸려 갔었지요. 워낙 힘이 곳곳해서 여자지만 남자 이상의 일을 했거든요”(이정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7쪽).

12) 오광선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는 1913년 4월 경성청년학원(京城靑年學院)에 입학하여 1915년 3월 졸업한 것으로 적혀있다. 경성청년학원은 상동청년학원의 오기로 여겨진다.

13)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상동교회일백년사』, 1988, 139~147쪽.

꿈을 토로하고 노자를 받았다. 함께 망명길에 오른 동지는 조카 오일선·의선 형제, 그리고 김중훈(金重勳)·이동민(李東民) 등 5명이다. 이들은 1915년 가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 신의주에 내린 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였다.<sup>14)</sup>

독립운동을 결심한 오광선 일행은 북경에 도착해 당시 중국 실권자들과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던 신규식(申圭植)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서 일찍이 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규식은 오광선 일행을 원세개(袁世凱) 총통에게 소개하여 중국의 군관학교에 입학하도록 주선하였다.<sup>15)</sup> 오광선은 원세개 총통 앞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 신의를 지키겠다는 선서식을 하였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광선(光鮮)으로 바꾸어 서명하였는데, ‘조선의 광복을 되찾겠다’는 뜻이라 한다.<sup>16)</sup>

오광선 일행은 원세개 총통의 주선으로 북경 북부 하북성에 위치한 보정(保定)군관학교<sup>17)</sup>에 입학하게 되었다. 오광선 일행은 6개월을 기한으로 폭탄제조법은 물론, 군관이 되기 위한 특수훈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가 중국 내전으로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sup>18)</sup> 여기서기 방황하던 차에 그가 마침내 찾아가기로 결심한 곳은 바로 남만주 일

14) 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8쪽 ;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239~240쪽.

15)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일조각, 1993, 21쪽.

16)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31쪽.

17) 보정군관학교는 1912년 북경 근교의 보정에서 元世凱 정부의 육군군관학교로 개교하였으나, 1923년 8월 폐교하였다. 약 6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장개석과 부이 등이 이 학교출신이다. 한인 중에는 김무정 장군이 1924년 포병과를 졸업했다(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86~87쪽 ; 王新哲 劉志强 任方明 편저, 『保定陸軍軍官學校史研究』,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5).

18)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2002, 240쪽.

대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학교였다. 봉천(현 심양)에서 출발한 오광선은 유하현 삼원포 합니하까지 700리에 이르는 먼길을 떠나 6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 3. 신흥무관학교 입교와 교관활동

오광선이 찾은 합니하의 신흥학교는 통화현에서 고뢰산·청하자의 첩첩산중을 한참을 돌아 현재 광화진(光華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3km 떨어진 합니하 강가에 자리하였다. 훈강(파저강波瀾江) 상류에 해당하는 합니하는 구릉진 산을 휘감으며 넓은 평야와 언덕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요새였다. 교사와 연병장은 광화진 쪽에서는 물론, 합니하가 흐르는 곳에 나 있는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어 적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sup>19)</sup>

부푼 꿈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신흥학교를 찾아온 오광선은 그러

19) 1991년 10월 신흥무관학교 터를 답사한 조선족 연구자 강룡권(1999년 작고)이 묘사한 주위 풍경은 다음과 같다. “주위가 고산준령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남북 10리나 되는 평원이 있고 그 남쪽끝이 논밭보다 약 30m 정도 높게 덩실하게 언덕을 이루었는데, 언덕 위엔 20정부가량되는 구릉을 이루어 마치 합니하 ‘평원’을 연상케 했다. 군사적으로도 영락없는 요새였다...천연무대와 서쪽심산이 맞붙어 있기에 실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2001)을 저술한 서중석 교수 역시 합니하가 “마치 (성벽 아래의)해자처럼 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그는 “광화진 쪽의 들판을 제외하면 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주 통로인 광화진 쪽의 들판을 제외하면 산길에 익숙한 한인들에게 유리한, 천험의 요새”라고 평가하였다. 2007년 8월 10일 필자와 용인항일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일행이 하룻밤을 묵으며 산 언덕을 현장답사한 바에 의하면, 무관학교 교사와 연병장 터는 ‘까우리관즈(高麗館子)’라는 한족 마을의 강 맞은 편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은 산 속의 큰 구릉 사이로 드넓은 분지가 펼쳐져 있어, 감산(본명 장지락)이 표현한대로 “열여덟 개의 교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산허리를 따라서 줄지어 있었다.”(김산·님 웨일즈, 『아리랑』, 동녘, 1984, 88쪽)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 학생들에게 일제 밀정으로 오인받아 감금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시 신흥학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었던 탓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거동이 수상적으면 일제 밀정으로 오인받아 학생들이 자체 조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sup>20)</sup> 다행히 삼악학교 은사였던 여준이 교장을 맡고 있어 면담을 통해 오해에서 풀려나 입교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오광선은 이곳에서 1916년 4월에 입교하여 1918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학업과 훈련에 임한 그는 수석이라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sup>21)</sup>

1919년 3월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의한 결전의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외의 수많은 청년들이 입학을 지원하였다. 이 무렵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장교였던 지청천(池青天, 1888~1957)이 동지 김광서(金光瑞)와 함께 만주로 망명해 신흥학교에 합류하였다. 이에 신흥학교는 장래 항일 무장투쟁을 수행할 군대의 양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군사훈련기관, 무관양성기관으로 개편하며 5월 3일(음력) 정식으로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여 개교식을 갖게 되었다. 이어 통화현 합니하의 본교에 이어 분교로 통화현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하동대두자(河東大肚子) 등에 군사기지를 신설하였다. 즉 합니하 본교와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분교에는 3개월의 일반훈련과 6개월 과정의 후보훈련을 실시하였고, 유하현 고산자에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 간부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항일전쟁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짐에 따라 고등군

20) 대표적인 사례로 만해 한용운이 일제강점 직후 신흥무관학교를 찾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생도들이 총을 쏘 죽을 뻔한 일이나, 1919년 8월 밀정혐의로 구타하여 사망시킨 윤치국 사건을 꼽을 수 있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188~190쪽).

21)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에는 ‘1915년 4월~1918년 3월 남만주신흥무관학교 졸업’으로 적혀있는데, 1916년의 착오로 여겨진다.

사반과 초등군사반 모두 3개월간의 단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1920년 1월 당시 통화현 합니하 본교의 학생수가 97명이며 고산자의 학생 수가 약 120명, 유하현 쾌대모자의 학생 수가 10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교관이었던 원병상은 한 학년 학생 수가 600여 명 규모였다고 증언하였다.<sup>22)</sup>

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오광선에게 학교측은 합니하에서 북쪽으로 200여리 떨어진 해룡현(海龍縣) 성수하자(成水河子)에 위치한 동흥(東興)학교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하게 하였다. 이후 지칭천이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신흥무관학교 교육훈련대장에 취임하자, 오광선은 다시 합니하로 와 교관으로 일했다. 오광선은 합니하의 초등 군사반에서 학도단장에 이어 교장 대리, 훈련감교장을 맡은 이장녕(李章寧)과 함께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당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은 교장 이천민, 부감 이갑수, 교사 윤기섭에 이어 학도단장인 이장녕, 학도단 부교사 김창환·성준용, 경리 이호영 등이다.<sup>23)</sup> 여준 선생은 그에게 부친과 부인 등 가족을 합니하 무관학교로 불러들여 같이 살게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본국 고향으로 몰래 소식을 전하였는데, 용인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정정산 여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1919년-편자 주) 봄 그이로부터 소식  
이 왔어요. 압록강 대안(對岸)에서 2백리 떨어진 합니하의 신흥  
무관학교에 와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것이었지요. 간단한 살림  
도구를 챙겨 용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명주리에서

22)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 사료집』 10, 1975, 12~15쪽

23) 김주용,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연구-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유관순연구』 24호, 2020, 10쪽.

내렸어요. 거기서부터 육로를 한달동안이나 걸어 만주로 들어갔지요.”<sup>24)</sup>

옥고로 몸이 불편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오광선의 동생과 부인 정정산과 여동생 2명 등 6명이 지게에 짐을 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한다.<sup>25)</sup> 약 한 달동안의 피나는 여정 끝에 오인수 망명 일행은 합니하 신흥학교에서 오광선과 상봉할 수 있었다. 짧지만 단란한 그녀의 가정생활이었지만, 피나는 독립운동 뒷바라지의 시작이기도 했다.<sup>26)</sup>

오광선 일가는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고 옥수수과 조를 심어 어려운 살림을 이어갔다. 쌀을 구할 수 있을 때는 1년에 한번, 설날뿐이었다. 교관인 오광선이 밤이건 새벽이건 갑자기 부하들을 데려와 밥을 먹였기에 집안의 식량은 매일 비었다고 한다.

“밥만 먹으면 빨래하고, 산에 들어가 풀을 베거나 나무를 태우는게 일이었어요. 저녁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왔습니다. 이웃의 중국사람들이 펍 친절해서 빵이나 밀가루 등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sup>27)</sup>

1919년 5월 고산자진 대두자(大肚子) 마을에 새로 분교가 설치되었다. 오광선도 고산자진 신흥무관학교에 교관으로 오에 따라 독립군 양성에 더 활기가 띠었다.<sup>28)</sup> 이후 그는 항시 지청천 장군

24)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9쪽.

25) 박환, <여자 독립군 오희옥여자 면담기> (『경기지역3·1독립운동사』, 선인, 2007), 502~504쪽.

26) 신흥무관학교 터 강 건너편에는 현재 ‘까우리관즈(高麗館子)’라는 한족 마을이 있는데, 아마 오광선 일가도 이 마을에서 거주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27) 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9쪽.

2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182쪽. 2007년 8월 11일 필자와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일행이 답사하여 현장을 확인한 고산

의 고급 참모로서 평생 동지이자 상관으로 모시게 되었다.

## 4.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

### 가. 서로군정서 활동과 자유시 참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으로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서간도와 북간도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은 본격적인 무장단체로 개편하였다. 우선 서간도에서 활동 중인 한족회(韓族會)와 신흥무관학교 등이 상해 임정과 협의하여 5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설립하고, 독관에 이상룡·부독관 여준, 사령관에 지청천, 참모부장에 김동삼을 각각 임명했다. 12월에는 북간도에서 대중교계인 중광단(重光團)을 이끈 서일(徐一) 총재가 김좌진을 영입하여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 일명 북로군정서)를 조직하였다. 홍범도 부대는 1920년 6월 7일 벌어진 봉오동 전투에서, 김좌진 부대는 10월 21~26일의 청산리에서 각각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오광선은 1920년 10월 서로군정서(부독관 여준)의 제1대대 제1중대장과 3중대장을 거쳐 경비대장과 별동대장을 맡았다. 그해 12월 러시아 국경인 밀산(密山)에서 각 독립군 부대가 통합되어 대한독립군단(총재 徐一, 부총재 洪範圖·金佐鎭·曹成煥, 참모총장 李章寧, 여단장 池青天, 부대원 약 3천5백여 명)으로 재발족되었다. 홍범도 총사령관에 이어 지청천이 부사령관을 맡은 대한독립군단에서 군사부장은 용인 기흥 출신의 김혁이 맡았고, 오광선은 이 군단 3대대의 제1 중대장에 임명되었다.<sup>29)</sup> 대한독립군단은 1921년 1월 러

---

자진 대두자 신흥무관학교의 위치는 함니하로부터 약 40키로 떨어진 ‘孤山子鎭 奎勝鄉 勝喜村’ 조선족촌 뒷산이다. 마을이름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기뻐한다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한다(전승향 조선족소학교 전 교장 閔泳海(1946년생) 진술).

시아령인 이만을 거쳐 5월 중순경 자유시(현재의 스보보드니)로 들어가게 되었다.

1921년 6월 대한독립군이 겪은 ‘흑하사변’(이른바 자유시참변)은 한국 독립운동사상 일대 참극이었다. 제정러시아의 짜르정권을 무너뜨린 공산계 러시아군(적로군)은 왕당파인 백계 러시아군(백로군) 사이의 내전에서 한인 독립군 부대를 이용할 목적으로 1918년부터 자유시로 불러들이고자 했다. 이에 홍범도·지청천·김혁 등은 자유시로 이동해 신무기로 무장을 갖추고 만주와 러시아 지역 무장부대의 단결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다보니 러시아로 망명한 한인 2세 출신 파르티잔으로 구성된 빨치산 출신부대와 만주 독립군 간에 세력다툼이 일어났다. 급기야 한인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두려워한 소비에트 정부의 배신에 의해 빨치산 출신 부대로 하여금 대한독립군을 공격하게 하는 ‘동족간의 참변’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독립군의 피해는 사망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다.<sup>30)</sup>

흑하사변으로 인해 독립군 지휘관 지청천과 채영·오광선 등 간부급 84명은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극동공화국 제5군단 관할 하의 이르쿠츠크 군 형무소로 이송되어 특별수용 되었다. 대부분의 나머지 병사들은 탄광과 벌목장에 노역병으로 보내졌다. 형무소의 수형생활은 춥고 배고팠을 뿐 아니라, 가혹한 민족차별과 좌익으로의 전향을 강요당했다. 지청천과 오광선에게는 일본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회유를 하려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급수급식을 단절하였다. 이들은 “영하 40도의 감방에서 통나무 의자의 나무껍질을 조용히 씹으면서” 계속 전향을 거부하였다.<sup>31)</sup> 오광선도 당시를 회고하기를,

29)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민족문화사, 1985, 98~99쪽.

30) 오광선, 「반세기의 증언」, 《조선일보》 1964년 3월 27일 ; 김정명, 『조선 독립운동 3권』, 국학자료원, 1980, 284쪽.

“물도 없이 검은 빵 두 쪽으로 연명해야 했던 옥살이 아래 옆에 놓인 생나무 책상을 씹어 먹을 만큼 허기가 졌던 사형수였다.”고 전하였다.<sup>32)</sup>

이러한 러시아군의 만행이 계속되자, 지청천 장군은 몰래 오광선을 탈출시킴으로써 수형생활의 참상을 동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오광선은 야음을 틈타 운명의 탈출을 결행하였고, 다행히 감시망을 벗어나 만주 국경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흥안령 북쪽을 돌아 시베리아 흑룡강변 우루강의 배달촌(倍達村)<sup>33)</sup>을 거쳐 밀산에 이르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 흑한과 배고픔을 참아내며 약 한 달만에 “얼음에 뒤덮인 바이칼호를 맨발로 걸어” 2만여 리나 되는 길을 헤치고 걷는 극한의 탈출이었던 것이다.<sup>34)</sup>

결국 김좌진 장군은 상해 임정의 김구 선생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임정의 국제적 여론환기 노력을 전개했다.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고 있던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에 실린 ‘동포에게 읊고하노라’라는 기사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더욱 급박한 일은 이르쿠츠크에 있는 채영·지청천 등 장교 70여 명이 러시아 감옥에서 하루 검은 떡 한 근씩 먹으니 며칠 안에 말라죽을 것이외다....당지(노령-필자 주) 천여 명 군대가 저들의 횡포 흉악을 미워함은 물론 일치하고 다만 몇십 명의 무리가 저놈들과 부아하여 로시아(러시아-필자 주)의 세력을 빌어서 제 동족을 이같이 잔학함은 차마 견딜 수 없습니다.”

31)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38~241쪽.

32) 오광선, 「반세기의 증언」, 『조선일보』 1964년 3월 27일자.

33) 박민영, 「북만주 오운현의 독립운동 근거지 배달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34)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31쪽.

그러면서 다음의 희망사항을 요약해 강조하였다.

중아(中俄) 양지에 있는 어느 통일기관이나 각 단체에서 연합하여 대표를 뽑아 극동 공화국 정부에 보내어 흑하참변과 우리 군대 일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케하며, 우리 군대를 해방케 할 일. 먼저 급히 할 일은 북경에 주재한 로시아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게하며 우리 군대를 해방하기로 모스크바 정부에 전보하게 하며, 또는 상해에 있는 극동정부 연락기관에도 이 사실을 소개할 일.<sup>35)</sup>

이러한 목숨을 건 오광선의 탈출과 폭로,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곧 러시아 레닌정부에 강력한 항의가 들어갔다. 이에 레닌이 외국 혁명가를 함부로 처형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관례에 따라 억류된 독립군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지시하게 되었다. 이에 1922년 8월 지청천 등 독립군 간부들이 풀려날 수 있었다.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로 강제 이송된 독립군 간부 84명이 1년만에 70명으로 줄어들 것은 이처럼 모진 학대와 시베리아의 혹한, 영양부족 등으로 희생된 결과라 하겠다.<sup>36)</sup>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의 주력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여준은 서간도 일대의 독립군을 규합하기 위해 새 무관학교를 만들려 했다. 여준은 일제와 러시아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임시정부의 처사에 반발하여 그의 개조를 요구하는 한편,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발송한 터였다. 나아가 폐교되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아예 길림시 액목현(額穆縣) 황야강자향(潢池崗子鄉)으로 옮기기로 하고, 1922년 초 액목현 대황지(大荒地, 현 蛟河市 남강자)에 검성학장(儉成學莊, 혹은 검성학당, 후에 검성중학으로 개칭)을 세우

35) <同胞에게 泣告하노라>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

36) 池憲模, 『靑天將軍의 革命鬪爭史 ; 池大亨』, 삼성출판사, 1949, 100~104쪽.

고 교장에 취임했다. 여준 선생이 출선하고 교포들이 힘을 모아 세운 이 학교에 믿음직한 제자인 오광선을 불러 체육선생으로 삼았다. 검성중학을 다닌 졸업생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학당 창건 초기에 여준이 교장 겸 영어과를 가르치고 원 신 흥무관학교 군사교관이었던 오광선이 체육교원으로 있었고, 오 일선과 박일준 등이 기타 학과목 교수를 맡았다. 학생 수는 70~80명이었다. 학당에는 기숙사와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집단생활을 하였다. 학과목은 교수의 수요에 따라 자체로 설치하였는 바 조선어문과 영어, 산술통편, 동국지리, 대동력사(이상룡 편) 및 박물 등이 있었다. 교재로 처음에 구한국의 것을 쓰다가 후에는 자체로 편집하여 썼다. 교수 가운데 학교운영 취지를 관통시키어 반일사상 교양과 군사교육을 자못 중시하였다..... 처음 대항지에 학교를 지을 때 3채에 10여 칸이 달린 집을 지었다. 그후 하북산 기슭의 사황지(지금의 신안툰)로 옮겨가 낡은 집 15칸을 사고 또 일부 간의건물을 지어 교실(3개)과 학생기숙사, 교무실로 썼다. 비록 학교조건이 아주 보잘것 없었지만, 교원과 학생들의 교수 및 학습열성은 아주 드높았다.”<sup>37)</sup>

지청천 장군의 딸인 지복영(池復榮, 1920~2007)의 오빠도 검성중학을 다녔다. 그녀의 회고에 의하면, 검성중학교는 둔전제 방식으로 운영했기에 교사와 학생 구분 없이 모두 들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오전에 학과 공부에 오후에 농사일을 해야 했기에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군사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목충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진짜 총 못지않게 이용하면서 군사지식을 터

37) 김동림, <검성학당>(『길림조선족』,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5), 479~480쪽.



득하는 동시에 체력을 단련했다.”고 한다.<sup>38)</sup> 여준이 세운 액목현의 검성학교에 대해 이곳에 거주했던 이상룡의 며느리인 허은(許銀, 1907~1997)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남만주의 난리(경신참변-필자 주) 후에 신흥무관학교는 길림 성 액목현 교하에다 옮기고 ‘금성중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교장에 여시당(여준) 선생님, 평교사에 오광선 선생님이 맡았다. 오광선 씨는 여준 선생의 처가쪽 조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동안 남만청년동맹(사회주의단체-필자 주)의 청년들이 금성중학교를 점령하려 했으나 훌훌히 그들 뜻대로 물려줄 리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세우고, 어떻게 꾸려 온 학교인데....<sup>39)</sup>

검성중학교는 1924년 가을 무렵 제1회 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여준과 오광선은 이곳을 서로군정서의 새로운 기지로 삼기 위해 둔전제를 실시하여 장기 전략을 세웠다. 오광선은 액목현으로 부친과 부인 등 가족을 옮기고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였다.<sup>40)</sup> 그러던 중 마적단의 습격과 추위,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오광선은 이후 용인출신의 무관이자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된 김혁(金赫, 1875~1939)이 주관하여 만든 대한독립군단에서 여단부관을 맡았다. 이곳에서 오광선은 제1대대장

38)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116쪽.

39)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음사, 1995, 94쪽.

40) 액목현 오광선의 집에 대한 기록은 청산리대첩에 함께 참전했던 동기 이우석(李雨錫, 1896~1994)의 수기에도 나와 있다. “액목현(額穆縣)은 吳光鮮이 있던 데이다....자꾸 자살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점점 고독감을 느꼈다. 하루는 吳光鮮의 집 뒤에 큰 늪(沼)이 있다. 세수를 하러갔다. 그날은 세수를 하려고 물을 들여다보니 하늘이 비친다. 풍덩 들어갔다. 그렇게 무서울 수 없다. 요행이 나왔다.”(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 역사공간, 2013, 58쪽).

(1921.2~1923.7), 그리고 별동대장(1923.8~1925.9)과 경비대장(1925.10~1927.4)을 맡아 일선에서 활동하였다.<sup>41)</sup> 같은 동향 출신인 김혁 장군과도 이 무렵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취송(聚松)이라는 그의 호도 김혁 장군이 지어 준 것이라 한다.<sup>42)</sup>

그런 속에서도 정 여사는 첫째딸인 오희영(1925년 4월 23일생)에 이어 2년 후에 둘째딸 오희옥(1927년 4월 3일생)을 낳았다.<sup>43)</sup> 둘째딸 오희옥은 검성중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어머니는 만주 가서 산의 나무를 다 자르고 밀어 논밭을 만들었대요. 농사짓고 거기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여장군 같아요. 일꾼 일곱명 두고 농사짓는데, 거기서 하루에 12가마씩 밥을 지어서 독립군들에게 먹였대요. 무관 학교 교관이고 체육교사였던 아버지가 밤늦게 여러 학생들을 데려오면 밥 다 해먹이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마당이 무척 넓고 그 안에 학교가 또 하나 있고, 대문 쪽에 총 쏘는 건물을 만들었어. 건물 밖으로 지나가면서 일본 놈하구 싸우려고, 대문이 있구 무척 넓어요. 학교 마당 같아요. 옆에는 학교라해서 가서 애들 공부하구....”<sup>44)</sup>

41)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42) <不逞團體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州の部(41)>, 1925년 5월 21일 ;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9쪽.

43) 호적상 오희영은 1924년생, 동생 희옥은 192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군을 피해 독립투쟁을 벌여야 했던 부친 오광선의 착오로 1년씩 늦게 기록되었다고 한다. 오희옥의 인터뷰는 박숙현, 『마지막 증언』 (복스스토리, 2019, 41쪽) 참조.

44)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향토 문화연구』 5집, 2003, 178쪽.

이렇게 헌신적인 독립군 뒷바라지를 한 정정산 여사가 얻은 별명은 ‘만주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검성중학교는 점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경화됨에 따라 1927년 청년강습소로 개칭되고야 말았다.<sup>45)</sup> 그러자 교장인 여준과 교관 오광선 등은 더 학교에 머물지 않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여준과 지청천·홍진 등과 함께 길림성 아성현(阿成縣)의 대석하(大石河)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산리대첩의 동지 이우석(李雨錫)의 수기에도 나와 있다.

“32세에 장가를 들고 阿城縣 大石河에 農庄을 租得하였다. 吳光鮮과 申肅 先生과 沈萬湖先生이 첫 해 농사를 하였다. 呂時堂(여준)先生·李靑天先生·洪震先生도 가까운 곳에 移舍하여 오셨다.... 大石河에는 吳光鮮에 家族·沈萬湖 家族도 있고 化均이도 있다.”<sup>46)</sup>

## 나. 한국독립군에서의 한·중 연합투쟁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 무렵 중국 만주의 정세는 일본군의 침략 노골화와 공산주의자들의 발흥으로 매우 불안하게 변화하였다. 전쟁 발발의 위기와 내부 좌익세력의 도전 속에서 재만 한인 민족주의 세력은 각 진영의 대동단결과 무장투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북만주의 신민부 관할지역에서는 김종

45) 김동림, <검성학당>(『길림조선족』,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5), 480쪽 ; 원시희,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726~728쪽.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 역사공간, 2013, 158~165쪽. 오인수의 사망지가 ‘滿洲國 吉林省 大溝府 四方台屯 15號’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가족들이 길림성 내로 이전해 산 것으로 보인다 (〈오성묵 제적등본〉 참조).

진·이을규 등 아나키스트들의 지원으로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해 자유 연합적 정치이념을 모색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의 김좌진·김종진 암살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지청천과 홍진 등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내걸고 1930년 7월 위하현가(葦河縣街)에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민본정치의 실현, 노본(勞本)경제의 조직, 인본문화의 건설’을 주요 당강으로 삼은 한국독립당은 군사·총무·경리·조직·감찰·선전 등 6개 부서로 이루어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31년경 당원만 수만여 명에 달하고 군구도 36개 지구로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한 한국독립당은 홍진이 중앙위원장을 맡았고 지청천이 당의 군사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오광선 역시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군사부 위원에 배치되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이 본격 만주를 침략하는 ‘9·18 사변’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독립당은 10월 2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재향군인을 소집하여 군대를 편성하는 한편, 연변에서 봉기한 2천여 중동선호로군(中東線護路軍) 겸 길림자위군(吉林自衛軍)과 교섭하여 공동 항일작전과 무기원조를 협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11월 2일 한국독립군 총사령부가 구성되었는데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이장녕(후임 신숙), 참모 조경한·김상덕이 맡았다. 오광선은 영군(營軍)의 일원으로서 의용군 중대장을 맡게 되었다.<sup>47)</sup>

1932년 2월 초 한국독립군 지도부는 길림성 아성현(阿成縣) 대석하(大石河)에서 열린 임시대회에서 중국 길림자위군과 합류하여 항일 공동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독립군 부대는 유격독립여단으로 명명하고 한·중 연합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 무렵 오광선은 한국독립군의 제3군을 영솔하는 대대장을 맡아 직접 전투

47)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회, 1979, 94~97쪽 ; 황민호,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8, 119~121쪽.

에 참전했다. 한국독립군의 주요 전투지역을 살펴보면, ▶일면파(一面坡) 전투(1932. 2~3) ▶연수현 전투(1932. 3~4) ▶아성전투(1932. 5) ▶쌍성전투(1932. 8 ; 11)<sup>48)</sup> ▶경박호전투(1933. 1) ▶동경성전투(1933. 6) ▶대전자령 전투(1933. 6) ▶동녕현 전투(1933. 9) 등이다. 이 중 경박호전투와 함께 대전자령(大甸子嶺)에서의 승리는 독립군 사상 3대 승첩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매우 값진 승리였다.<sup>49)</sup>

그러나 한·중 연합군은 중국군 내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으로 한국군 지도부가 체포되고 무장해제당하는 등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해 10월 구금된 한국독립군이 풀려나긴 했지만, 다수의 장병들이 흩어지고 중국군에 대한 배신감이 깊어 더이상 공동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또한 대전자령에서 큰 피해를 본 일본군이 10월 대대적인 토벌에 나설 계획이어서 한·중 연합군의 활동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갔다.

이 무렵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의 밀사가 도착했다. 윤봉길 의거 이후 김구 주석과 장개석 국민당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어 곧 낙양에 군관학교를 세울 계획이니 중국 본토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한국독립군 지도부는 이를 승낙하고 지청천을 책임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지청천·오광선 등 39명은 1933년 11월 중국노무자로 변장하여 2~3명씩 조를 이루어 산해관을 넘어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sup>50)</sup>

48) 1932년 무렵 오광선은 한국독립군의 대대장을 맡아 아성(阿城)과 쌍성(雙城)전투의 일선에서 참전했음은 참모였던 이규채의 자술 연보에도 잘 나와있다(이규채 지음·박경목 옮김, 『이규채기억록』, 일빛, 2019, 48~57쪽).

49) <00군총사령지청천 풍옥상동맹군에 가담> 《동아일보》 1933년 7월 31일 ; 《신한민보》 1933년 9월 31일. 한중 연합군의 무장투쟁에 대하여는 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107~145 참조.

50) 지청천·오광선의 중국 관내로의 탈출에 대하여는 <李圭彩 신문조서(제3회)> (이규채 지음·박경목 옮김, 『이규채기억록』, 일빛, 2019, 48~57쪽)과 지청천,

1934년 2월 28일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서 중국 전역에서 모집된 한인 92명이 특별반으로 편성되어 본격적인 군관 양성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청천이 총책임자로서 군사훈련을 지도했고, 오광선이 교관으로 초빙되었다.<sup>51)</sup> 그러나 낙양분교 한인반은 한국독립군 출신과 김구 계열, 김원봉 계열로 나뉘어 세력간의 경쟁이 일어나 갈등이 쌓임에 따라 2기생을 배출한 이듬해 4월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지청천과 이범석, 오광선 등 교관들도 사직하고 말았다.

오광선이 낙양에서 북경으로 파견될 무렵, 그의 가족들은 지청천의 가족과 함께 북경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정산 여사와 가족들은 북경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천진으로 옮겨 2년 정도 살았다.<sup>52)</sup> 당시 오광선이 중국철도에 공무원으로 다녔으므로, 가족의 생활비는 물론 지청천 장군의 가족을 봉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천진에서 살던 오광선의 가족들은 다시 남경으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 가족들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남경에서 첫 아들인 오영결(1936~2001.4.27)이 태어났다.

이후 오광선은 첩보공작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1934년 10월 당시 남경에서 신한독립당에서 군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청천이 오광선을 만주로 파견하여 만주국의 중요시설 정탐과 반만 공작대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오광선은 북만주 오상(五常)현에서 왕덕림(王德林) 등을 만나 반만·반일 운동을 협의했다고 한다.<sup>53)</sup> 이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지시에 따라 북경으로 파견되어 비밀공작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김구 주석은 만주에서의 독립기지

「광복군과 나의 투쟁」 《희망》 1953년 2월호, 18쪽을 참조.

51) <지청천휘하 40명 낙양군관교에 입학> 《조선일보》 1934년 8월 22일 ; 김학민·이병갑 주해, 『정본 백범일지』, 학민사, 1997, 321쪽.

52)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吳姬玉여사 면담록」 《용인향토문화연구》 6집, 2006, 362쪽.

53) <지청천의 밀사 入滿, 反滿공작을 획책> 《동아일보》 1934년 11월 3일자.

를 재건할 목적으로 오광선으로 하여금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규합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오광선은 1936년 북경에서 금은방을 차리며 잠행하게 되었다.

북경에 홀로 남아 첩보활동을 펼치던 오광선은 마침 그 곳에 들른 일본 관동군 참모장인 도이하라(土肥源) 중장의 암살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국내에 침투한 다른 공작원의 체포에 따라 근거지가 노출되고 말았다. 1백여 명의 만주군 보안대와 일본 경찰의 기습으로 오광선은 1937년 1월 2일 체포되고 말았다.<sup>54)</sup>

일본군에게 피체된 오광선은 약 11개월에 걸친 온갖 고문과 조사를 거쳐 1937년 11월 11일 3년형을 선고받고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다행히 고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행세를 하며 가명을 써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아버지 오광선에게 직접 전해 들은 둘째딸 오희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비밀공작 사명을 맡겼어. 청년 몇 명 데리고 가서 비밀공작하라고...아버지는 북경서 금은방을 잘했는데, 어떤 한국인 스파이한테 걸려서 별안간 다들 자는데 한밤중에 우당탕 쳐들어 와 담을 넘어서 잠옷바람에 다 걸렸대요. 그중에서 한사람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이 있었대요. 창칼 끈으로 끊고 뛰어내렸는데, 50미터 간 후에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총을 옆구리를 맞았대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옥으로 가신거죠. 고문형을 받아서 일본 순사들이 가시로 막 찌르고 고문해서 정신을 몇 번 까무러쳤대요. 그래도 중국 낙양군관학교만 나왔다고, 끝끝내 다른 얘기를 안했대요. 여기 ‘오원지(吳原之)’라는 중국사람으로 행세한 거잖아요. 신흥무관학교 나왔다고 하면, 죽이지 뭐 한국사람인데...그래, 3년만에 풀려 나온거

54)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하)』, 18쪽 ;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184쪽.

쥬. 다 죽어 가는 것을 들판에 그냥 버렸다. 겨우 기어가 중 국집으로 들어갔대요.”<sup>55)</sup>

오광선의 체포 소식을 들은 남경의 임시정부 지도부와 가족들은 그가 처형당했을 것으로 여겼다.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임정 요인들은 그의 아들을 유복자로 여겨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수감 직후 부친 오인수도 사망하여 가족의 고통은 매우 컸던 것이다.<sup>56)</sup>

이후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터져 임시정부 요인들 모두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오광선의 가족들 역시 남경에서 호남성 장사(長沙)로, 다시 광둥(廣東)으로, 다시 유주(柳州)를 거쳐 기강(綦江)으로, 다시 중경(重慶)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오희영과 희옥 자매는 1939년 2월 유주(柳州)에서 결성된 임시정부의 문화공작 부대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대장 高雲起)에 가입했다. 총 34명 중 여성 11명으로 편성된 공작대에서 자매는 일본군 이동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지원병 모집을 위한 연극과 노래공연 등 문화선전 활동을 펼쳤다. 이 중 송면수(宋免秀)가 직접 쓰고 연출한 연극 <전선의 밤>은 중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sup>57)</sup> 당시 활동을 오희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하고 우리도 나와서 연극하고 또 중국과 합작해서 연극하고 일본놈이 저지르는 참상을 전부 백성

55)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향토 문화연구』 5집, 2003, 184쪽.

56) 오인수의 사망지는 ‘滿洲國 吉林省 大溝府 四方台屯 15號’로 되어 있다(〈오성록 제적등본〉 참조). 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91쪽.

5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5, 205쪽 ;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일조각, 1991, 64~68쪽.



들에게 알리게 하는 공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두에 나가 선전공작도 하고, 가두연설을 하고 극장에서는 무용, 연극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14살이고, 무대에 올라 무용이나 러시아 춤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나는 남자로 러시아 음악을 하 모니카로 불면서 올라가 춤을 추니 대환영을 받았습니다.”<sup>58)</sup>

중경에서는 토교(土僑)라는 작은 마을에서 임정 요인 식구들 10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정 여사 식구들과 함께 토교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정정화 여사(김가진의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토교에서도 정씨는 홀로 삼남매를 키우느라 늘 궁색한 처지로 형편 필 날이 없었고, 백범은 오광선의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다....이들에 비하면 영걸 어머니 정씨는 아무래도 고생이 심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특히 영걸 어머니에게 정을 쏟고 희영이나 희옥이에게 좀더 잘해 주려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영걸 어머니는 만주에서 농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몸도 건강해서 내 발일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나는 그 대신 그 집 삼남매의 옷가지 손질이며 이부자리 만들기 등 주로 바느질 일을 도와주었다. 큰 딸 희영은 일찍 광복군에 가담해서 일을 하다가 같은 광복군 동지인 신송식(申松植)군과 ‘동지결혼’을 했다.”<sup>59)</sup>

정정화 여사는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이 결성되자, 그 맹원의

58) 김태근, 「내 기억 속의 언니 오희영」, 『용인향토문화여구』 8집, 2007.

59)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184~185쪽. 장남 오영걸도 구술하기를 부친이 북경에서 잡혀간 후 주로 김구와 이시영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누님 오희영의 결혼식에 김구 주석이 주례를 서 주었다고 기억하였다(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하)』, 34~35쪽).

로 활동하였다. 이후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당원에 가입하여 임정 활동에 참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오희영과 희옥 자매 역시 광복군에 입대해 초모공작 등에 활약하였다. 특히 맏딸 희영은 아버지 오광선을 찾아가기 위해 일본군 점령지역에 파견되는 최전방을 자원했다.<sup>60)</sup> 이후 그녀는 1944년 김구 주석의 비서와 경호업무를 맡고 있던 신송식(申松植, 별명 宋洋浩·申三澤, 1914~1973)과 혼인하여 ‘부부 광복군’의 모범을 보였다.<sup>61)</sup>

오광선은 1940년 11월 중순 출옥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 흑룡강성 하얼빈 인근의 대석하와 흥안령지역에서 항일 빨치산들과 만나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만주 각 곳을 편력하면서 지하활동을 피하다가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

60)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239~245쪽.

61) 김병기, 「오희영·신송식의 광복군 활동」, 『용인향토문화연구』 8집, 2007.

## 5. 맺음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 소식을 중국 흑룡강성에서 전해 들은 오광선은 어렵게 서울로 귀국하였다. 이후 상해로 건너가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을 찾아가 만났다. 지 장군은 그에게 광복군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고 국내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미군정 당국과 협의해 광복군을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국군 자격으로 입국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인과 두 딸, 아들을 상해에서 만난 후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오광선은 이기봉(李起鵬)을 통역으로 하여 미군정 하지 중장과 담판하였다.

그러나 임정과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군정의 방침으로 인해 교섭은 수포로 돌아갔고, 직접 전용 항공기로 중국에 가 임시 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그는 11월 임정을 법통으로 추대한 대한민국준비위원회(위원장 柳東悅)의 총사령을 맡았다. 하지만 미군정에 의해 모든 사설군대의 해산을 종용받자, 1946년 4월 광복청년회를 조직하였다.<sup>62)</sup> 또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 지청천 장군이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자 여기에 참여하였다. 미 군정의 국방 경비대 창설에 반대하다가 정부 수립을 계기로 국군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 1948년 12월 육사 8기 1차로 입교하여 이듬해 1월 육군 대령으로 임관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맞았다. 당시 오광선은 서울에 남아 있다가 단신으로 월남해 내려가 국군에 합류하였다. 이후 전주지구위수사령관을 8년 동안 지낸 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하지만 예편 후 그

62) 해방 후 오광선의 건군활동에 대하여는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하)』, 1989 ; 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를 참조.

의 삶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절망과 분노, 빈곤만 남았다.<sup>63)</sup>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김홍일(金弘壹)·김학규(金學奎) 등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sup>64)</sup> 1960년 독립운동자 표창을 받은 후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다.<sup>65)</sup> 오광선 장군은 1967년 5월 3일 향년 73세로 서울 회기동 42-71 자택에서 작고하였다.<sup>66)</sup>

오광선의 일생은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국군 건설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의병장이었던 부친과 고향 삼악학교의 스승인 여준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상동청년학원에 이어 만주로 망명하였고,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여 교관생활과 독립군 간부로 성장하였다. 또 한국독립군 실전 부대장으로 한·중 연합군을 이끌고 전장을 누비는 등 부친과 스승의 유지를 충실히 받들었다. 여준 선생의 사망 이후에는 임정 백범 주석의 명에 따라 이청천과 함께 독립군 양성 간부로 활약하고 나아가 일제 치하의 북경으로 잠입해 첩보활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렀다. 항일전쟁과 대한민국 건설에 뿌려진 그의 삶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거대한 뿌리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원인 및 전쟁 양상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원고투고일 : 2021. 10. 6,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오광선, 여준, 신흥무관학교, 이청천, 한국독립군,  
광복군 국내지대

63) <빛나는 독립투쟁의 거성들(4) 오광선옹-빈곤에 묻혀 사는 노병> 《경향신문》 1960년 10월 5일.

64) 《조선일보》 1963년 1월 9일자.

65) 《경향신문》 1960년 9월 30일 ; 10월 5일 ; 《동아일보》 1962년 2월 24일자.

66) 《조선일보》 1967년 5월 5일자.

## <참고문헌>

### 1. 사 료

『독립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한민보』  
不逞團體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州の部(41), 1925.5.21  
오광선 호적등본, 1964년, 서울시 동대문구청  
오광선 자필이력서, 1963년 작성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청산리대첩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 역  
사공간, 2013

### 2. 단행본 및 논문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http://doi.org/10.15799/kimos.2014..49.006>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  
향토문화연구』 5집, 2003.  
\_\_\_\_\_, 「오광선의 민족운동과 한국광복군」 『한국독립운동 속의 용인』,  
용인향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09.  
\_\_\_\_\_, 『한국사가 기억해야 할 용인의 근대 역사인물』, 노스보스, 2015.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오희옥여사 면담록」 『용인향토문화연구』 6,  
2006.  
\_\_\_\_\_,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http://www.uci.or.kr/G901:A-0006029379>

- 용인문화원 편, 『한국독립운동과 용인』, 노스보스, 2019.
- 원시희,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 이규채 지음·박경목 옮김, 『이규채기억록』, 일빛, 2019.
- 이성부, 「정정산 여사 인생증언 ‘광복군 따라 유랑생활 30년」 『주간여성』, 1974.8.
- 이인영 편, 『내 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항쟁사』, 용인문화원, 1989.
-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여성 한국광복군 지복영 회고록 -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http://www.uci.or.kr/G901:A-0006562708>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민족문화사, 1985.  
<http://www.uci.or.kr/G901:A-0007883670>
- 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http://www.uci.or.kr/G901:A-0006058579>
-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음사, 1995.

(Abstract)

## The Independent Activities in Manchria conducted by military Instructor 'Oh Kwangsun' in Sinheung Military Academy

Kim, Myung-seob

Oh-Kwangsun sought asylum to China in 1917 following the teachings of his father's "Righteous Army" against imperial Japan and his hometown teacher, Yeo-jun. He joined Sinheung Military school in Seogando, China, where he became an instructor and an independent military official. He also led the Korean-Chinese coalition to the battlefield as the head of the Korean Independent Army.

As his mentor Yeo Jun passed away, he served as a official for the cultivation of the Independence Army along with Yi,Cheong-chun under the orders of President Kim-Gu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Furthermore, he infiltrated Beijing, an occupied area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was sentenced to prison for spying. After his country's liberation,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Liberation Army's domestic zone to help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turn to the country, and was a typical anti-Japanese and founding soldier who had served till his last rank of brigadier general while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the Korean military. Furthermore, his two children and his son-in-law worked hard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deed, he is a well-known family member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ree consecutive generations. Oh-Gwang-seon's life is dominated by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

construction of a liberated Korea. Not only did he participate in various battles at the forefront of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war, but he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His life in the construction of a liberated Korea must be the great root of today's Republic of Korea.

Keywords : Oh Kwang-sun, Yeo Jun, Sinheung military school,  
Lee Cheong-chun, Korean Independent army,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